

편집 및 발행인 : 김종덕 · 발행처 :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·지원센터

총괄 : 최나영환 감수 : 길광수 전화번호 : 051-797-4770 · E-mail : chnayoung@kmi.re.kr / kdong@kmi.re.kr

Contents

● 국제물류 통계

- 유럽발 미 동안행 컨 해상운임, 지난 1년간 큰 폭 상승

● 아세안 물류시장 동향

- 중국 충칭 - 미얀마 만달레이 간 철송 서비스 본격 개시

● 유럽 물류시장 동향

- 함부르크항, 수출 컨 열차 운행 중단

● 미주·중남미 물류시장 동향

- 미국 LNG 수출물량 고갈 전망

- 휴스턴항·FSX, 화물 셔틀 시스템 배치 위해 협력

● 공지사항

- 2022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

- “국제물류 정보포털”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안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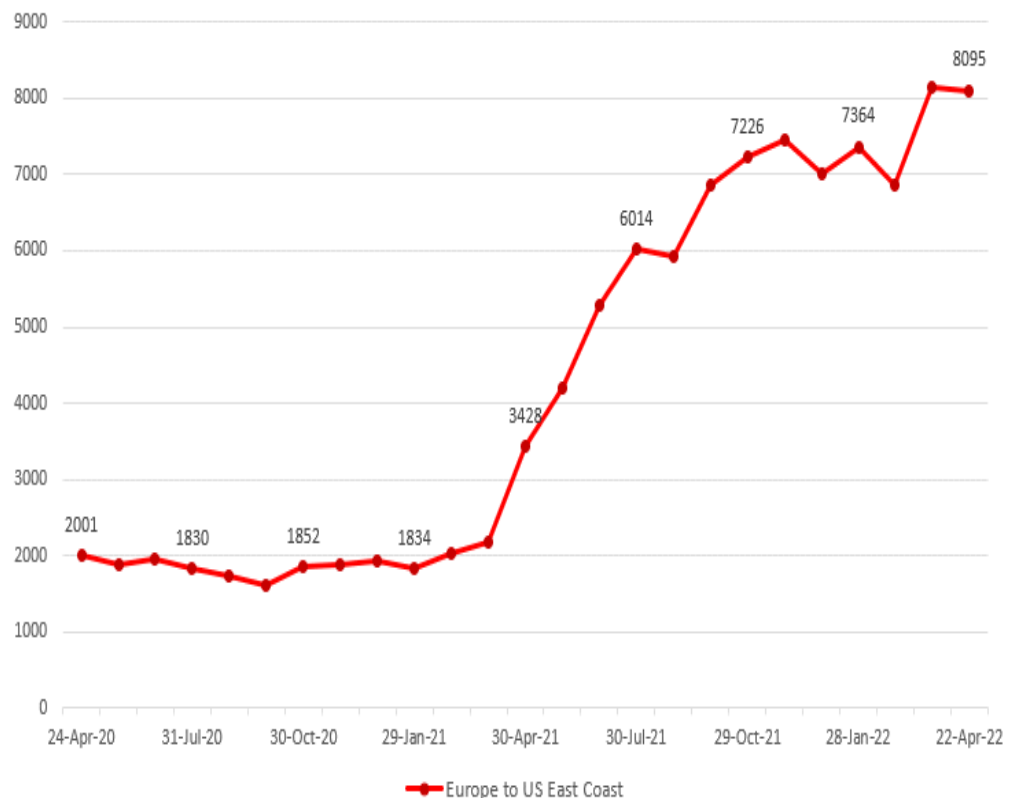
유럽발 미 동안행 컨 해상운임, 지난 1년간 큰 폭 상승

▶ 유럽발 미국동안행 컨테이너 해상운임이 코로나19 이후 1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으나 지난 1년 동안에는 큰 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

- Freightos International Freight Index 자료에 따르면 유럽발 미국동안행 컨테이너 화물(40피트 기준) 운임은 2020년 4월 2,000달러에서 2021년 3월 2,171달러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올해 4월 8,095달러로 증가해 1년 동안 약 3.73배 증가함
- 이는 미국의 화물 수요가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PIERS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대서양을 통해 미국 동안으로 운송된 컨테이너 양은 16만 3,751 TEU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퍼센트 가량 증가했음

유럽발 미국동안행 컨테이너(1FEU 기준) 해상운임 변화(2020.04-2022.04)

(단위 : 달러)



자료 : www.gscintell.com, (검색일 : 2022.5.24.)

● 반면 그 외 유럽발 또는 미국동안행 기타 항로 해상운임의 경우 올해 들어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함

- 유럽발 중국 및 동아시아행 컨테이너 해상운임의 경우 2020년 4월 1,424달러에서 올해 1월 1,054달러까지 하락했고 4월에는 771달러까지 하락해 안정세를 보임
- 중국 및 동아시아발 미국동안행 컨테이너 해상운임의 경우 2020년 4월 2,687달러에서 지난해 9월 2만 1,840달러까지 상승했다가 올해 4월 기준 17,150달러로 안정세를 보임

유럽발 중국/동아시아행 컨테이너(1FEU 기준) 해상운임 변화(2020.04~2022.0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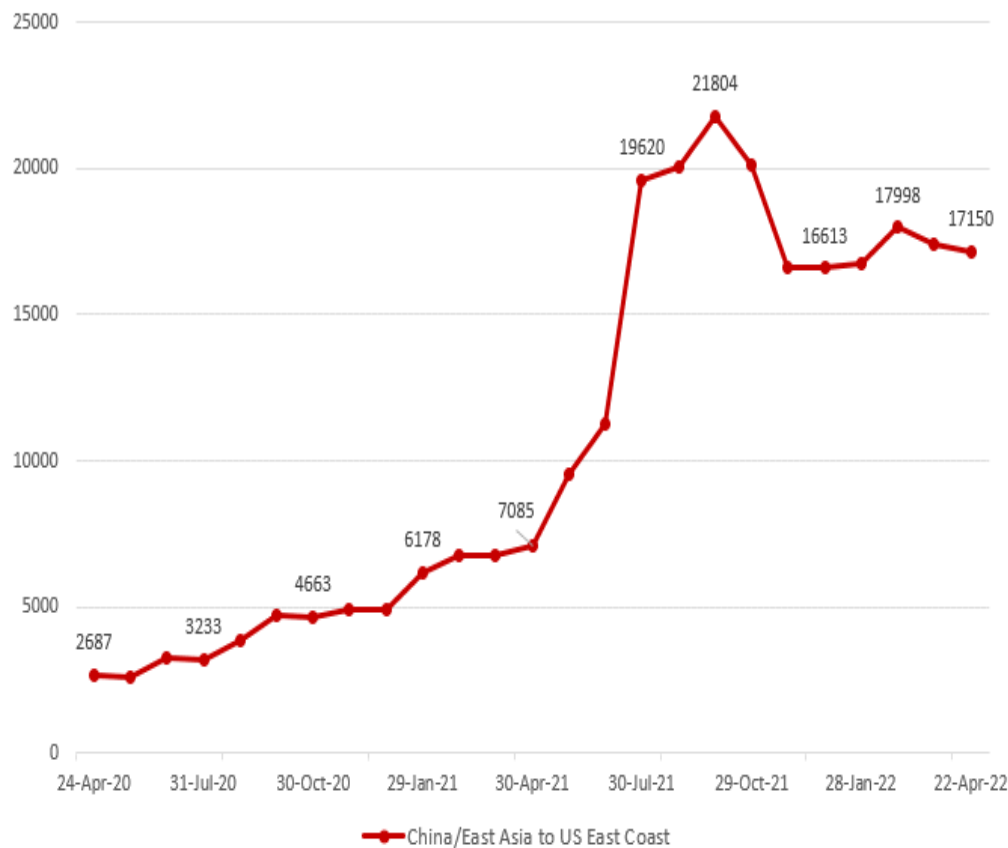
(단위 : 달러)



자료 : www.gscintell.com, (검색일 : 2022.5.24.)

중국/동아시아발 미국동안행 컨테이너(1FEU 기준) 해상운임 변화(2020.04-2022.04)

(단위 : 달러)



자료 : www.gscintell.com, (검색일 : 2022.5.24.)

자료 : www.gscintell.com, (검색일 : 2022.5.24.)

중국 충칭 - 미얀마 만달레이 간 철송 서비스 본격 개시

- 중국 남서부 충칭과 미얀마 남부 만달레이를 잇는 신규 철도운송 서비스가 지난 5월 23일 공식적으로 운행을 시작함
 - 전체 운송구간을 살펴보면 충칭에서 출발해 미얀마 국경과 인접한 윈난성의 린창을 거쳐 만달레이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총 길이는 약 2,000km에 달함
 - 동 철도 노선의 리드타임은 약 15일로 기존 노선 대비 20일 정도 감소했으며, 물류비는 약 20% 이상 절감할 수 있어 향후 중국과 아세안을 잇는 주요 운송수단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예상됨
- 중국과 아세안 간 철도운송을 수행하는 철도 물류기업에 따르면 해당 노선은 만달레이항 까지 이어지는 복합운송노선으로 충칭과 만달레이는 향후 중국과 아세안 국가의 핵심 물류 거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
 - 동 운송서비스 개시 이후 초기에는 중국에서 미얀마로 향하는 물동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, 향후 만달레이발 충칭행 노선의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

충칭-만달레이 간 화물 철도



자료 : www.globaltimes.cn, (검색일 : 2022.5.23.)

- > 동 철도운송 서비스는 중국과 미얀마 간 리드타임 및 물류비 감소뿐만 아니라 중국 서부 내륙지역에서 중동 및 유럽 주요 항만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중국과 아세안 간 철도운송 확대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음
 - 중국 정부는 동 신규 철도운송 서비스 개설을 통해 아세안 국가 및 RCEP 회원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며, 지난해 개설한 중국-라오스 철도운송을 비롯해 향후 아세안 주요 국가와의 국경운송을 더욱 늘려나갈 것으로 전망됨
 - 또한 만달레이항까지 철도운송 이후 중동을 비롯한 유럽까지 연결 가능해 중국과 중동 및 유럽을 잇는 중간 거점으로서 물동량 증가세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

미국 LNG 수출물량 고갈 전망

- ▶ 지난주 CNBC에 따르면 미국 남서부의 극심한 가뭄과 높아진 기온으로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전일(5월 17일) 대비 4.4% 올랐음
 - 미 남부 일부 지역은 화씨 100도(섭씨 약 38도)를 웃도는 폭염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립기상청(National Weather Service)은 이번 주 텍사스, 오클라호마, 루이지애나에서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했음
- ▶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이미 연초 대비 2배 이상 상승했으며 예년 기온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올여름에는 지금보다 25%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음
- ▶ 공급량 부족을 우려한 천연가스 선물 시장의 반응(선물가격 상승)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으며 이는 천연가스가 부족한 유럽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
- ▶ S&P Global Commodity Insights는 미국에서 지난달(4월) 생산한 천연가스의 생산량이 정제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유럽에 수출하는 LNG가 고갈되고 있음을 언급했음
 - 미국에서 생산하는 천연가스의 약 15%는 LNG 형태로 전환해 유럽을 비롯한 해외에 수출하고 있으며 현재 유럽 지역의 LNG 가격은 미국 LNG 가격의 4배에 해당함

최근 3년간 미국 천연가스 선물가격



자료: CNBC 「Natural gas prices have already doubled this year. A hot summer could push them even higher」 (2022.5.17.) 참조

- 현재 미국 시장에서 천연가스의 공급은 여유가 없으며 저장량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
 - 미국 천연가스 저장 수준은 2021년보다 18%가 낮고 최근 5년 평균보다 16% 정도 낮은 수준임
 - 북미 지역의 기온 변화로 추운 봄 날씨에 뒤이은 폭염으로 인해 예년보다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내년 겨울을 위한 비축량 중 일부가 사용되고 있음
- 미국 천연가스 현황을 볼 때 LNG 수출물량을 제한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-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한 유럽지역 천연가스 부족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됨
 - 미국은 유럽지역에 더 많은 LNG를 보낼 예정이나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천연가스 생산량을 20% 늘려야 함

휴스턴항·FSX, 화물 셔틀 시스템 배치 위해 협력

▶ 휴스턴항과 FSX가 화물 셔틀 시스템 배치를 위해 협력하고 있음

- 휴스턴항과 화물 셔틀 시스템 개발업체인 FSX가 항만 컨테이너 시설에 화물 셔틀 시스템(Freight Shuttle Seaport System)을 배치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함
- FSX(Freight Shuttle Xpress)는 화물 이동에서 트럭 운송시 발생하는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텍사스 A&M 교통연구소(Texas A&M Transportation Institute, TTI)에서 시작된 화물 셔틀 시스템 개발 업체임
- FSX의 Steve Roop CEO는 “휴스턴항은 성장으로 항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창의적인 솔루션이 필요하며, 항만 화물 셔틀 시스템은 항만에서 컨테이너 이동 속도를 가속화하고 자율차량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송할 수 있다”고 전함
- 휴스턴항의 Roger Guenther 전무이사는 4월 이사회에서 “FSX 셔틀이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줄이려는 휴스턴항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, 보다 효율적인 화물 운송을 위해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화물 셔틀과 같은 기술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열심히 살펴보고 있다”고 전함

▶ FSX의 화물 셔틀 시스템은 항만의 화물을 효율적으로 운송할 수 있음

- FSX의 화물 셔틀은 고속도로 중앙의 고가 트랙에서 전기 동력의 운송기를 통해 컨테이너를 최대 500마일 운반할 수 있음
- FSX의 최고 개발 책임자인 Michael Yager씨는 “교통 혼잡이 심해지면서 트럭 운전사가 화물을 빠르게 운송할 수 없게 되는데, FSX의 셔틀 시스템은 이러한 상황에서 릴리프 밸브 역할을 하는 새로운 화물 운송 모드”라고 전함
- 또한, Michael Yager씨는 “10마일 트랙의 단일 셔틀로 하루에 항만을 최대 60회 왕복할 수 있으며, 전체 셔틀 네트워크는 하루 최대 10,000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다”고 전함
- FSX에 따르면 화물 셔틀 시스템은 트럭과 경쟁하지 않으며 운전직을 빼앗지 않을 것이고, 더 이상 화물을 효율적으로 운송할 수 없는 지역에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

FSX 화물 셔틀 시스템



자료 : www.freightshuttle.com, (검색일 : 2022.05.24.)

➤ 화물 셔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초기비용이 들 것으로 보임

- 셔틀의 고가 트랙 비용은 시스템의 길이에 따라 마일당 약 1,500만 달러가 들 것으로 보이며, 셔틀과 터미널 및 관련 기반 시설은 마일당 천만 달러가 추가될 것으로 보임
- Michael Yager씨는 "FSX가 화물 셔틀의 초기 배치 소요자금을 조달할 사모펀드 회사에 관심을 갖고 있다"고 밝힘

FSX 화물 셔틀 시스템 트러일러 운반 시연



자료 : www.freightshuttle.com, (검색일 : 2022.05.24.)

함부르크항, 수출 컨 열차 운행 중단

- ▶ 함부르크항이 현재 주말 수출 컨 열차가 모두 함부르크 인근에 정차해 있으며 이에 따라 다른 열차를 운행할 수 없다고 전함

- 함부르크항은 철도 화물 서비스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, 제한된 선로 용량, 이미 지연된 서비스 및 개량공사를 포함한 주요 요인으로 당분간 열차를 받을 수 없다고 밝힘
- 함부르크의 컨테이너 운송을 위한 모달 시프트에서 철도의 점유율은 약 51.5%이며, 트럭 운송은 46.1%, 내륙 수로 운송은 2.4%를 차지함에 따라 현재 열차 운행 중단은 화물 운송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

함부르크항



자료 : www.hafen-hamburg.de, (검색일 : 2022.05.25.)

- ▶ 수출 철도 서비스 중단은 주로 Eurogate, CTA 및 CTB 터미널에서 발생했으며, 현 상황이 얼마간 지속될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임

- 함부르크항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열차가 제한적으로 운행될 것이라고 말하고, 구체적인 문제의 원인으로 입구 철로 체증, 함부르크 출발 열차 지연, 개량공사, 외부 인프라의 불규칙성과 한계 등을 꼽음

- 또한 독일 오순절 연휴인 6월 5일과 6일이 함부르크와 브레머하펜을 오가는 선적 계획 및 일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함
 - 더불어 6월 18일과 19일에는 Burchadkai 및 Eurogate/Eurokombi 터미널에 열차 도착하는 것을 폐쇄할 예정으로 함부르크항까지의 철도 화물에 대한 예정 운행 제한과 현재 상황이 결합되어 열차 정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- 한편, 함부르크항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전년 대비 1.8% 증가한 총 220만 TEU를 기록했으며 특히 금년 1분기 철도 화물 운송량은 70만 TEU로 전년도 1분기 대비 1.4% 증가함

2022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

2022년
해외물류시장
개척지원 사업
모집 공고

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 지원,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과 국내 화주·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 활성화 및 양 업계 간 상생협력 풍토 조성을 위해 **"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"**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본 사업의 세부사업인 **"해운·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"**과 **"화주·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사업"**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모집기간

2022년 5월 13일(금) 09:00 ~ 6월 9일(목) 18:00 까지

제출방법

한국해양수산개발원(www.kmi.re.kr)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국제물류 정보포탈(withlogis.co.kr)에서 공고문 확인 및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 제출

사업대상

1) 해운·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

- 국내 기업의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 조사·분석 지원
-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, 전문 컨설팅 기관 등을 통한 타당성 조사(경제, 기술, 재무, 법률 등)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보조
- 대상사업의 유형에 따라 1건당 최대 8천만원 한도 내 조사비용의 50% 보조

2) 화주·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사업

- 화주·물류기업 간 동반진출 협력과정에서 조달, 생산, 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 진단·분석·설계, 시장조사 등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 지원
- 최대 4천만원 한도 내 컨설팅 비용의 50% 보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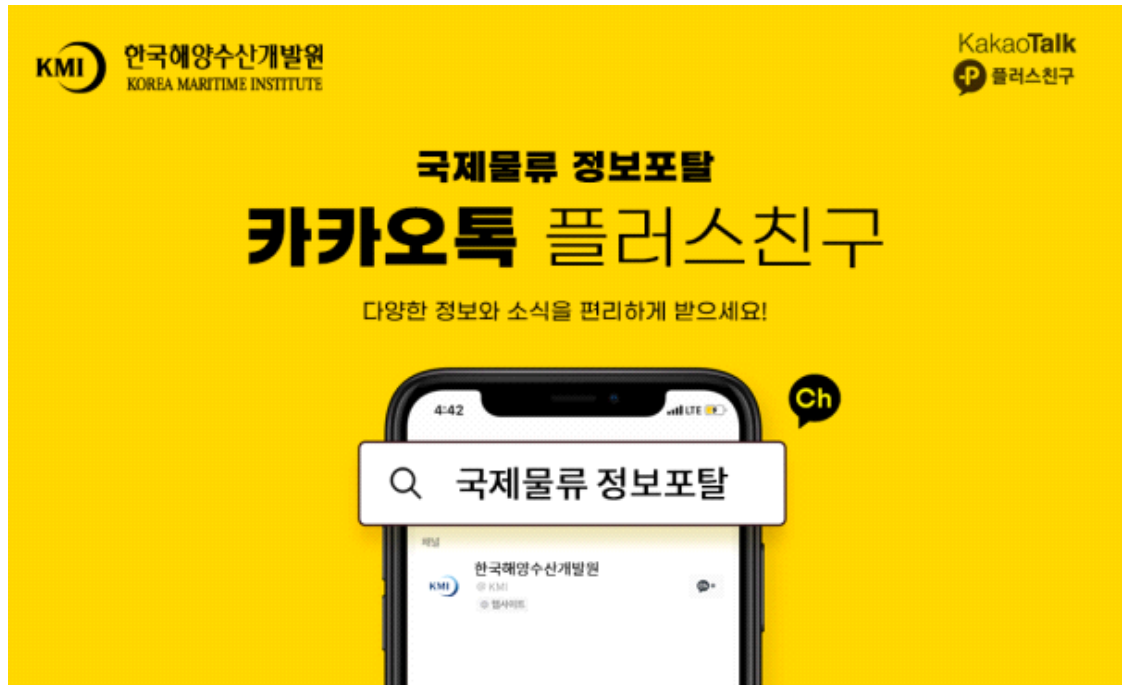
문의처

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·지원센터
- 최나영환 센터장 051-797-4770, chnayoung@kmi.re.kr
- 김동환 연구원 051-797-4913, kdong@kmi.re.kr

▶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
온라인 사업설명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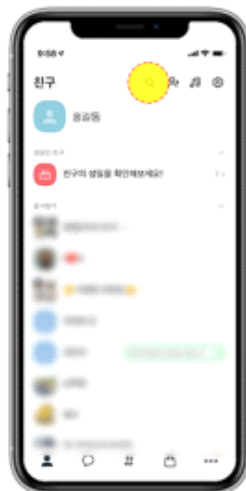
▶ YouTube **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** 채널을 통해 실시
www.youtube.com/watch?v=g1NNUz8iYQY

『국제물류 정보포탈』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비스 안내



친구 추가 방법

1. 카카오톡 메인화면
상단 친구 검색



2. 『국제물류 정보포탈』
검색



3. 친구추가 버튼

